

차별화된 첨단 웰빙 아파트와 지방시장 집중 공략! (Well-Being+intelligent)

동문건설(주)(대표이사 경재용)이 2005년 을 한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최고의 건설가치는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철저한 기능성 아파트 구현' 이다. 요즘같이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불황을 모르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능성 추구가 필요하며, 기능성 중에서도 '웰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동문건설(주)은 2005년 차별화된 웰빙아파트의 지속 공급과 홈네트워크시장을 앞도하는 아파트의 디지털기능성의 혁신에 중점을 줄 계획이다.



젝트인 '동문교하굿모닝힐'도 철저한 기능성(Well-Being)을 추구한 아파트의 예이기도 하다. 거실에 아로마향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향기나는 아파트를 구현하였으며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슬라브 두께 13.5cm에서 한층 진화된 18cm 두께로 아파트 슬라브를 광폭시공하고 층간차음재를 넣었다. 총 3,003세대 4개 단지별 지상 테마파크를 최소 10개에서 최대 18개까지 구성을 하여 단순한 주택단지에서 벗어나 전원의 아름다운 생활을 간직한 전원아파트를 실현하였다.

또한 지하 1층 깊이를 통으로 파서 주차공간을 넓게 확보하며 주차비율도 한층 높였으며, 1층세대에 전용 출입구와 전용정원을 제공하여 기존 1층세대의 취약점을 개선한 기능성도 선보여 소비자들에 인기를 끌었다.

평면구조, 마감자재, 단지설계 등 기능성을 혁신한 친환경·친건강·차별화된 첨단 웰빙아파트 집중 개발

'품질과의 무한경쟁'을 선포하며 동문건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품질경영으로 1984년 설립 이후 기능성 추구에 앞장을 서온 동문건설(주)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소비자가 마감재를 선택하는 마이너스 옵션제, 향기 발현 아파트 시공, 황토방 아파트 시공, 자연친화형 단지구성, 안목치수 적용 내부설계 등 항상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경영으로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능을 아파트에 도입하여 주거문화를 한층 더 높여왔다.

올해말 입주예정인 파주교하지구에 공급했던 대규모 프로

올해 동문건설은 어려워진 주택시장에서 품질경영에 더욱 매진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평면구조, 마감자재, 단지설계 등 기능성을 혁신하고 친환경 소재로 내부를 마감하며, 단지 구성에 있어서는 테마조경과 웰빙개념을 적용한 각종 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실내 평면은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철저한 실용성 위주로 꾸밀 예정이다.

2002년 10월 정보통신회사를 인수하여 정보통신 전문회사인 동문정보통신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정보기술을 국내 아파트건설에 접목하여 날로 첨단화해 가는 건설 기술에 날개를 달기 위한 기술력 접목을 꾀하고 있는 동문건설은 작년 2004년 5월 11일, 기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보다 한층 더

- 차별화된 웰빙아파트의 지속 공급과 홈네트워크시장을 주도하는 아파트의 디지털가능성 혁신!
- 2005년 총 4,074세대 분양예정 중 지방시장(울산,양산) 2,105세대 집중공략!

업그레이드 된 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인 '르네트'를 출시, 발표하였다. 주택업계 최초 실제 APT에 필요한 기능들만 가진 차별화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새로 분양하는 현장마다 적용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과감한 공격경영을 실시하여 부동산 침체기에서도 선전하며 초우량 기업을 실현하여 주택시장 일류기업으로서 도약할 것이다.

동문건설은 기존 홈네트워크보다 한층 더 업데이트 된 입주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형 기능과 입주자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변화하는 맞춤형 기능형 기능을 가진 '르네트'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발표한 이후, 동문건설이 공급하는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동문굿모닝힐 입주자들에게 디지털과 웰빙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능을 올해에도 크게 강화시키며 분양현장에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홈네트워크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2005년 총 4,674세대 분양예정과 지방시장(울산,양산)에 2,705세대 집중공략!

건실한 재무구조와 내실경영, 상위 신용등급과 신뢰도, 경영성과, 1인당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며 2003년 한해동안 민간건설업체 중 대한주택보증 '2003년 분양보증실적'에서 분양보증금액 대비 1위를 차지하고, 2004년 6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신용등급 A 등급을 획득한 동문건설은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올해에도 내실경영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IMF 이후 고속성장을 이룩한 저력과 건설의길 24년의 Know-how를 바탕으로 어려운 분양 시장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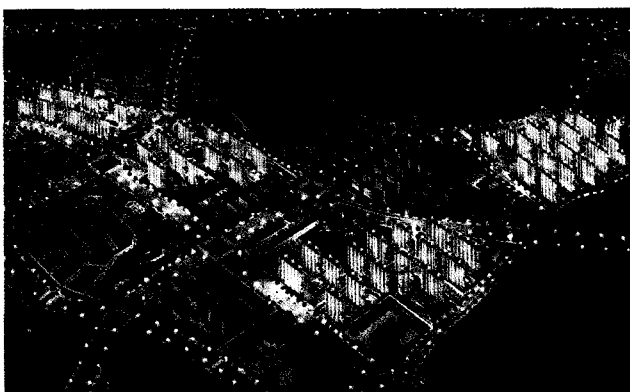
양산시리조트 동문굿모닝힐 전경



일산 사리현 동문굿모닝힐 벽산광장 야경분수

동문건설은 2003년 11월에 단일사업장으로는 최대의 물량인 파주교하지구에 4개블럭 3,003세대를 동시에 분양하였다. 그 이후로 경기도 화성과 구리등지에서 분양을 하는 등 주택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5년 5월 판교와 가까워 후광효과를 누리는 용인 동천동 '수지동천6차 동문굿모닝힐'을 1순위 마감하는 성공적인 분양이후에도 올해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에서 7개 현장, 4,245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파주 교하 동문굿모닝힐 조감도

하반기에 화성시 봉담읍 480세대, 울산시 구영지구 732세대, 울산시 무거동 687세대, 울산시 장검지구 600세대, 용인시 상현리 660세대, 용인시 구성읍 400세대, 12월에는 양산물금지구에 68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택지개발과 경전철, 지하철 연장선 등으로 관심이 높은 용인에 2개 현장 1,06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울산, 양산)에 2,705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문건설은 올해부터 지방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동문굿모닝힐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역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상에 차가 없는 APT, 탑상형 설계, 열병합 난방 시공, 채광과 쾌적함을 극대화한 4-BAY 구조 적용, 최고급의 품질과 최첨단 기술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르네트' 적용 등 최신평면과 마감자재로 지방시장을 공략하며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5일 근무로 인해 레저수요를 겨냥하여 2004년 10월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 파크2'를 완공하였고, 아산에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

현장 경험과 전문보직제 통한 고객만족 실현



동문건설 대표이사 회장 정재용은 주택사업 22년동안 전체물량 중 85%를 32평형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공급하는 등 중산층의 주택보급률 확대와 주거생활안정에 노력해 왔다. 주택건설업자의 임무는 온가족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1997년 1월 '품질과의 무한경쟁'을 선포하여 품질을 최우선으로 해 왔으며,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철저한 기능성 아파트 구현'을 모토로 차별화된 웰빙문화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을 중시하는 현장중심경영과 입사 후 한 보직만을 전문직으로 담당하게 하는 전문보직제(드릴링 시스템)를 통해 200여명의 직원들을 주택에 대한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 전문보직제를 통해 훈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공급하여 어려운 분양시장 속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문건설의 '동문굿모닝힐' 브랜드는 2002년도 19개, 2003년 15개, 2004년 환경주거문화대상 및 언론사 9개 히트상품을 수상하는 등 매년마다 히트상품으로 소비자들에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동문건설 대표이사 회장 정재용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돈독한 협력업체와의 관계, 넉넉한 자금사정 등으로 신용 좋은 회사로 인정을 받은 결과로 2002년 4월 26일 '2002년 주택건설의 날'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5월22일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모범 중소기업경영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중요한 경영상을 수상하였다. 청소년의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서울지구 청년회의소 이사(1991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부회장(1997년), 강서장학회 이사(2001년), 홍익대학교 장학재단이사(2002년), 작년(2004년 12월)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지원센터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문건설(주) 정재용 회장은 현재의 저출산(한국의 출산률은 1.17로 세계최저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현재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운동에 적극 뛰어들 계획이다. 사내에서도 출산장려책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률 감소는 단순한 수적인 감소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면에서도 인력자원이 고갈되어 미래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잃게 될 것이며, 주택건설적인 면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개인주의의 증가와 주택수요의 감소 등 주택건설적인 면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직원에 대한 출산 후 충분한 출산휴가의 보장, 남자직원들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실시,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인센티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원, 출산 후에도 정상근무를 유도하여 여성인력들에 대한 출산기피현상을 없애고 자녀가 있는 직원가족에 대한 좋은 근무환경을 제시하여 직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984년 동문건설을 창립하고 설립 후 22년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2만6천여가구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한 동문건설 대표이사 회장 정재용은 홍익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첫 직장으로 외환은행에 입사했지만 고정적인 은행업무보다는 건설에 대한 관심으로 서른 살이 되던 지난 1981년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두고 고향 땅 김포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 짓는 일을 맡아 시작했다. 1984년에 지금의 동문건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